

기관 돋보기 | 행복양로원

존중·감동 서비스... 행복한 노년 보장

'사람을 존중하고 감동을 선사해 자조·자립 능력을 향상시켜 능동적인 변화를 이끈다'라는 서비스 운영철학이자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실이 있다.

음성군 생극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혜성사회복지재단 산하 행복양로원(원장 이종필)은 무료 양로시설로 1994년에 개원하여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조·자립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인 자립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입소 어르신들로 구성된 행복장학회를 설립해 현재까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장학생 122명에게 총 2천 240만원의 장학금 기탁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쳐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자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A등급' 획득하며 충북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편집자주)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행복양로원은 무료 양로 시설로 입소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소통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4년 개원하여 올해로 29년째 운영되고 있는 행복양로원은 사회 또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60명이 입소해있다. 더불어, 원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 17명이 함께 생활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노인의 날(10월 2일) 기념 입소 어르신들과 가을 나들이 단체사진 모습.

소외 어르신 대상 자립 프로그램 등 양질 돌봄서비스 운영 행복장학회, 장학금 기탁 등 지역사회 후원·동반자 역할

위에 힘쓰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입소 어르신들과 소통 중심 프로그램으로 월 1회 간담회, 조별 티타임, 자치위원회 등 종사자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무조건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어르신들의 자조·자립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자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매월 초 어르신 간담회를 진행하며 양로원 일정 공유, 어르신 건의 사항 수렴, 행복장학회 모금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중 행복장학회는 2011년부터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매월 간담회 시 입소 어르신들에게 행복장학회를 소개하며 희망자에 한해 성금 기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22명의 학생에게 총 2천 2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달 이후에는 성금 기부에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과 한 해 동안 모금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평가를 시행하며 후년도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행복양로원 행복장학회는 2021년 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행복장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밖에 2015년부터 직원들의 추천으로 선정된 10명의 어르신을 자치위원으로 구성하여 업무성과, 추진 계획, 월간계획을 보고하는 등 매월 자치위원회의를 개최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설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이종필 원장은 "시설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

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시설관리자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전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시설이 '무료 양로원'이라는 타이틀만으로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을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반면에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정기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따뜻하게 어르신들을 모셔 온 직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최상의 편안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양로원은 자조와 자립, 사람을 존중하여 감동을 선사해 어르신들의 능동적인 변화를 이끌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하고자 한다.



음성군 생극면에 위치한 행복양로원 전경.



입소 어르신들로 구성된 행복양로원 월간 자치위원회 회의의 진행하고 있다.



김영석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내빈 및 관계자들이 사회복지비전포럼을 하고 있다.

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충북도사회복지대회

복지부 장관 표창 등 유공자 55명 포상 수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이하 협의회)와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양순경)가 공동 주관으로, 제 23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지난 7일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장에서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든든한 복지충북, 소외없는 복지제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김영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박기순 제천시 부시장, 김호경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유관기관 단체장 및 종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제천국악협회의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양순경 회장의 개회선언,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사회복지비전포럼 등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충청북도지사 표창, 충청북도의회 의장 표창, 제천시시장 표창,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을 비롯한 6개 훈격 사회복지유공자 55명에게 수여했다.

부대행사로는 천연비누·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여성일자리취업상담, 사

회복지유관기관 홍보부스 운영 등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복지에 대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김영석 회장은 "사회복지 주간만이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진심으로 위로받고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사회복지가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중요한 영역임을 알릴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해온 사회복지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사회복지인들이 화합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순경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헌신으로 사회복지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와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대회를 제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제천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증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2년 하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4개소 선정

충청북도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10월 7일)해 '2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4개 기업을 신규 지정했다.

도는 본 심사에 앞서 관련기관(사회적경제센터, 고용노동청, 시·군)과의 현장실사를 통해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서비스제공형 5개소, 일자리제공형 6개소, 지역사회공헌형 7개소, 혼합형 1개소, 기타(창의·혁신)형 5개소로 지정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향후 2년간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

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자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충북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총복형 115개소와 부처형 40개소 및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43개소 등 총 298개소가 있다.

한편, 충북도는 연간 상·하반기 2회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며 '23년 1월에 추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청주시 장애인복지분야 공약 추진 총력

디지털배움터 설립·주간보호시설 확충 등 추진 단기돌봄·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 인프라 14개소 추가

청주시는 민선 8기 장애인분야 공약을 확정하고 장애인 맞춤형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민선 8기 장애인분야 공약은 장애인 디지털배움터 설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민간 장애인시설 지원 강화, 장애아 보육시간 연장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재활병원 설립 등이다.

장애인 디지털배움터는 행복구

신봉동에 내년 착공 예정이다. 3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가상경험 및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Ar·VR)을 활용한 재활치료와 사회적응 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해 줄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지난달 상당구에 1개소 설치 완료됐다. 올해 안에 서원구 1개소

추가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도의 공약이기도 한 재활병원 설립은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및 해외와 역할분담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장애인단기돌봄센터 1개소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9개소를 확충하고 청주시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재건축하는 등 총 14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했다.

서원구 산남동에 신설된 청주시 장애인단기돌봄센터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갑작스러운 부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

로 보호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만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및 18세 미만의 초중고에 재학중인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각각 확충,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도 향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은 지난해 680명에서 올해 712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기존 31개소였던 제공기관은 공모를 통해 9개소를 확충해 운영할 수 있게 돼 만족도가 높아졌다.



진천군은 지난 12일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26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진천군,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41명 수상

진천군은 26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12일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기섭 진천군수를 비롯한 내빈과 지역의 노인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지회장 박승구)에서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노인의 날(10.2)을 맞아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 색소폰 연주 등의 식전행사와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영상메시지, 기념식이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식에서는 박승구 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41명이 노인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군수상, 군의장상, 대한노인회장상, 재경군민회장상 등을 수상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나라의 발전과 번영은 많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어르신들께 경륜과 지혜를 배우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으로 진행됐다. 또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사회복지분야 유공자에게 표창(14명)과 기념패(1명)를 수여하고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 낭독도 이어졌다.

이진용 2·3부 행사에서는 피아노 4중주 연주를 비롯한 아티스트 축하 공연을 열어 사회복지인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진용 회장은 "코로나19로 그동안 개최하지 못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다시 개최해 매우 뜻깊다"며 "오늘 행사로 사회복지인 여러분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함께하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취약계층 위한 사회공헌펀드 공동 기탁

한전 충북본부 등 4개 기업·기관 1000만원 상당 기부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가 14일 청주시청을 방문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000만 원 상당의 사회공헌펀드를 기탁했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가 14일 청주시청을 방문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000만원 상당)의 사회공헌펀드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감영관 본부장, 대한제지(주) 성광식 팀장, LG화학 청주공장 김영화 이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정종택 철도시험인증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부하는 사회공헌펀드는 한전 충북본부와 (주)LG화학, 대한제지(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본원 4개사가 지난 3월에 체결한 '사회공헌펀드 공동 조성 및 재난안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의 상호협약에 따라 공동 출연했다.

협약은 한전 충북본부에서 (주)LG화학, 대한제지(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소유의 전력설비에 대해 유상으로 정밀진단 및 기술컨설팅 등의 기술을 지원하고, (주)LG화학, 대한제지(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전의 기술지원에 준하는 비용을 사회공헌펀드로 출연해 4사가 공동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기부하자는 내용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펀드 출연금을 기부해 주신 4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부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한국전력 충북본부와 한화솔루션(주)는 진천군청을 방문해 진천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400만 원 상당의 사회공헌펀드를 기탁했다.

음성군, 제11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성료

조병옥 군수 "함께하는 평생복지 실현 최선 다할 것"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난달 27일 제11회 음성군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서 사회복지 유공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건용)는 지난달 27일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제11회 음성군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 종

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생활지원사를 포함해 400여명이 참여했으며 1부 기념사와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시상식 그리고 2·3부 축하 공연

으로 진행됐다. 또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사회복지분야 유공자에게 표창(14명)과 기념패(1명)를 수여하고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 낭독도 이어졌다.

이진용 2·3부 행사에서는 피아노 4중주 연주를 비롯한 아티스트 축하 공연을 열어 사회복지인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진용 회장은 "코로나19로 그동안 개최하지 못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다시 개최해 매우 뜻깊다"며 "오늘 행사로 사회복지인 여러분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함께하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군 제43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개최

시각 장애인 복지 증진 위한 다양한 행사 열려



단양군은 19일 단양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43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단양군이 지난 18일 단양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43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사)충청북도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단양군지회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김문근 단양군수, 조성룡 단양군의회의장, 정해용 사)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단양군지회장 등

을 비롯한 주요인사와 지역 내 시각장애인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흰지팡이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하, 등으로 이뤄졌다.

군수표창에 권수복씨, 군의장 한기성씨, 연합회장 표창은 이선희씨가 각각 받았으며 단양군지회 표창은 김영순씨에게 수여됐다.

제천시, 청년구직자 면접정장 대여 지원

제천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지역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7일부터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정장 대여 전문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면접에 필요한 의류 일체를 대여해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여 품목은 남성 구직자는 자켓, 바지, 셔츠, 구두, 벨트 등이며 여성 구직자는 자켓, 스커트(바지), 블라우스, 구두 등이다.

공고일 기준만 19세 이상 39세 이

하의 구직자이며 면접예정자 중 제천시민이거나 제천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는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돼 있으며 신청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내 토로 441)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echeon5763@korea.kr)로 보내면 된다.

1인당 연간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043-641-6635)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vms043@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되길"

큰나라찬 사회적협동조합, 추주 이웃돕기 500만원 기탁



큰나라찬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들이 21일 이웃돕기금 500만원을 추주시에 기탁하고 있다.

큰나라찬 사회적협동조합대표 이사 한승원이 지난 21일 추주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

했다.

이날 조합 관계자들은 추주시청을 찾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큰나라찬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쟁 고용이 힘든 중증장애인을 채용해 장애인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또 지난해 구리시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마스크 1만 매, 추주시 노인장애인시설에 마스크 3만 매, 제천수도사업소에 마스크 3만 매를 기탁하는 등 2020년부터 지역 사회 공헌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승원 대표이사는 "이번 성금 기탁이 소외되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음은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정류 및 식용류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신선 식품	유가공류	햇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병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234-1377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법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증평군, '함께하는 행복돌봄' 본격 추진

초등생 돌봄기관 확충 돌봄인력 양성·활용

증평군은 민선 6기 1호 공약인 '함께하는 행복돌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증평군 돌봄 IT'를 구성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초등학생 돌봄 기관 확충, 돌봄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3개월~만 12세 아동을 대상

으로 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등 초등학생 돌봄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4곳,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학교 돌봄교실 4개교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초등생 이용률은 영유아 돌봄 이용률보다 저조한 편이다.

이에 군은 2023년 창의파크, 2024년 개나리아울센터, 2026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각각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올해 작은 도서관 2곳의 돌봄사업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작은 도서관 6곳까지 확대 운영한다.

돌봄전문가 과정을 운영해 지

역아동 돌봄전문가, 방과후 돌봄교실 지도사 등 20여명의 인력을 양성한다.

기존 평생학습관에서 인성교육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돌봄기관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돌봄기관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옥천군은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1인가구의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옥천군 '사회적고립·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약체결'

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 사회관계망 형성 추진

옥천군은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지역 내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관심과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AI, ICT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NUGU 돌봄 케어플랫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군은 7월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돼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AI스피커 지원사업, 행복드림이 사업, 행복담은 밀키트 사업 등 총 6개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

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규철 군수는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각지대 없는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옥천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1년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5월 기본계획 수립, 6월 고독사 고위험군 일제조사를 완료했

괴산군 청안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착공식

네패스, 성금 4800만원 기탁... 취약한 3가구 선정



네패스와 괴산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6일 괴산군 청안면에 거주하는 김모씨 집을 대상으로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착공식을 진행했다.

괴산군, 네패스(회장 이병구),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영수, 이하 충북모금회)는 6일, 괴산군 청안면의 김모씨의 집에서 청안면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착공식을 진행했다.

'청안면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이 노후 되어 보수공사가 시급한 저소득가구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네패스의 '나눔씨앗'을 통해 4800만원의 사업비를 기부하였으며, 괴산군 청안면에서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3가구를 선정했다.

'나눔씨앗'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프로그램으로, 회사에서는 임·직원들이 기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펀드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 충북모금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선정된 주택이 대부분 흙으로 지어진 집으로 내·외벽 보수공사 및 단열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보수공사는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착공식에서 네패스ENC 남택용 사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양육보조금 지원 확대로 행복한 육아 동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자금 1000만원 인상 등

괴산군이 취약계층 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한다.

군은 내년부터 가정위탁이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자금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월 28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보호종로 아동의 자립 및 사회정착 자금을 상향 지급하는 것이다.

가정위탁아동은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가족 해체로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다.

군은 가정위탁 아동 지원 금액의 현실화와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북

도내 최고 수준으로 증액해 지급한다.

저소득 결식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약 700명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도 하루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까지 매년 2대씩 총 6대의 노후 통학차량을 순차적으로 지원해 교체할 계획이다.

병원 이동 비용을 지원하는

'괴산 아이사랑 교통비'도 군내에 소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간 지원 횟수를 8회에서 12회로 늘린다.

아울러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유기농꾸러미 지원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멸 자치단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자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 착한가게 200호점 현판 전달식

학산면 '갈기산농원식당' 매출 일정액 이웃 나눔



영동군 학산면 갈기산농원식당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영동군 착한가게 200호점'에 이름을 올렸다.

노영수 충북모금회장, 김창호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

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등을 말한다.

김운주 갈기산농원식당 대표는 "평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영동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착한가게 캠페인을 알게됐다"며 "영동군 착한가게 200호점이란 이름에 맞게 지역과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황금이네, 취약계층에 1000만원 기탁

취약계층 200가구 전달 예정

보은산업단지에서 운영중인 황금이네는 12일 보은군청을 방문해 군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0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황금이네는 2021년 보은산업단지 입주해 ABC주스, 도라지배즙, 사과즙 등 건강즙을 생산하는 업체로 2021년 매출액만 약 82억 원에 달해 건강보조음 식품 제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이다.

기탁금은 군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가정 2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흥택 대표는 "평소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이 성금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나누게 됐다"고 전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보은군 취약



보은산업단지 황금이네 서흥택 대표가 취약계층을 위해 1000만원을 기탁했다

계층을 위해 기탁해 주신 서흥택 대표님께 감사하며 기탁하신 성금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 서비스 시행

5일 단축 편의 대폭 향상... 이달부터 수수료 전액 지원

보은군은 이달부터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 서비스를 시작해 신청한 등록증을 찾으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등록증 신청과 수령을 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2회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때 1

회 방문으로 원하는 주소지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장애인등록증 발급은 신청에서 수령까지 평균 15일 이상 소요됐으나, 우편배송 서비스 시행으로 기간이 5일 이상 단축돼 발급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편배송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

담하며, 장애인등록증과 고속도로 통행료 환인기능이 포함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시 부과되는 4000원의 수수료도 10월부터 군에서 전액 지원해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식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 서비스를 비롯 앞으로 장애인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대리 (T.043-234-0840~2)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게재 개월 및 기탁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정신장애인 10만명 시대... 재활시설 '태부족'

정신병원 2100곳인데 정신재활시설은 346곳 정신재활시설 아예 없는 지자체도 105곳 달해

정부에 등록되는 정신장애인이 매년 증가해 10만 명이 넘어섰고 성인 4명 중 1명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지만,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한 정신병원 입원과 장기입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10만4000명에 달했고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비율)은 28%에 달했다. 또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은 3년 새 22%가 늘어 2000곳이 넘는 반면, 정신재활시설은 되려 감소해 346곳에 그쳤다.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이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의 83%를 차지하고, 정신장애

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은 18%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105개 지자체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없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2만5000여 명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20곳에 정신재활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위기지원센터 설치는 더욱 열악했다. 운영 중인 위기지원센터는 9곳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위기지원센터는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곳으로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

사회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크게 부족해 정신장애인이 불필요한 정신병원 입원을 선택하고, 또 장기입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당사자와 이웃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23시간 위기 안정 관측, 24시간 위기 핫라인, 동료지원 위기센터, 정신과적 사전의료의향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있고, 영국도 당사자 거주지 인근 위기 개입 서비스를 도입해 입원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복지부, 자원봉사 활성화 위해 시스템 연계 운영

보건복지부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배회감지기' 총 2507대를 무상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은 2021년 7월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의 업무 협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 시작했으며, 이 사업은 SK하이닉스의 후원금(연 4억원) 지원을 받아 2024년까지 매년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통신비 2년분도 전액 지원하게 된다.

올해 배회감지기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와 함께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배회감지기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급하게 된다. 배회감지기를 보급받은 어르신들은 해당 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와도 연계되어 치매와 관련된 종합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치매 환자 실종 발생 시 배회감지기를 활용한 수색·

수사를 통해 치매 환자가 신속히 가뒀도록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지역사회 치매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앙치매센터의 '치매자원봉사 시스템'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을 연계·운영한다.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선 및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플러스'를 양성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자원봉사 시스템을 운영하여 치매파트너·치매파트너플러스 등의 치

매 자원봉사활동을 등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자원봉사단체·기관에서 이루어진 자원봉사자의 봉사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그간 치매 자원봉사활동은 치매자원봉사 시스템 외에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에도 별도로 수기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하여 두 시스템 간 치매 자원봉사자 및 활동 실적 등 정보가 연계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치매 자원봉사 활동실적 자동 연계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치매 자원봉사 활동에 보다 관심을 갖고 치매파트너·치매파트너플러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가구당 1만3000원 인상

〈가구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변경 전	137,200	189,500	258,900	347,000
변경 후 (10.12~)	148,100 (+10,900)	203,600 (+14,100)	278,000 (+19,100)	372,100 (+25,100)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1만3000원 인상(17만2000원→18만5000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말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만5000원 인상(12만7000원→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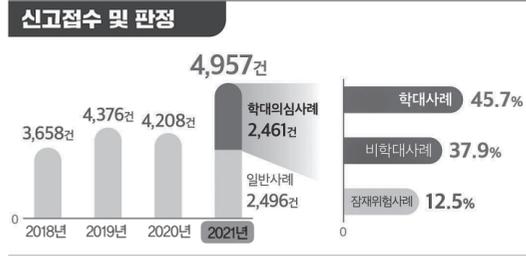
만2000원)했으나, 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이 오른 점을 고려해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4만8100원(1만900원 인상), 2인 가

구 20만3600원(1만4100원 인상), 3인 가구 27만8000원(1만9100원 인상), 4인 가구 37만2100원(2만5100원 인상) 등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 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 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117만6000가구다.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한국전력(한전), 도시가스 등 각 에너지 공급

사에 직접 카드결제해 사용이 가능하다. 등유, 연탄,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방식이다.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 하루 13건 신고... 전년 대비 17.8%↑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학대 판정 1124건



장애인학대 사례가 1년 사이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 장소는 장애인의 거주지가 약 절반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4957건,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이다. 각각 전년 대비 17.8%, 18.9% 증가했다. 학대 의심사례 판정 결과 학대 판정은 1124건으로 전년대비 11.5% 늘었다. 비학대는 933건, 잠재 위험은 307건, 조사 중은 97건이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판정 건수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고 있고, 전국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대 피해 장애인의 유형을 보면 74.1%가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와 같은 발달장애인이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27.4%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 24.9%, 정서적 학대 11.0%, 성적 학대 10.1%, 방임 5.8% 순이다. 복수 유형 학대가 동반되는

중복 학대도 20.8% 있었다. 학대 행위자는 가족·친인척이 36.2%로 가장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지인이 2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2%, 아버지 11.9%다. 학대 의심사례 신고자 중 68.7%가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였고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31.3%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피해 장애인 본인의 신고가 18.6%,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2.8%, 가족 및 친인척 12.2%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6%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7.9% 순이다.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담당자,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 초·중·고교 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에 추가됐다. 정부는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해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있다.

'재택의료 시범사업' 12월부터 실시

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참여기관 모집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라며 10월 12일부터 시범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가정 방문과 돌봄 등으로 지속해서 환자를 관리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12월부터 1년이고, 기존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 기본료(장

기요양보험) 등을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군·구 등 지자체가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복지부에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복지부는 20여개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메일(jiin1123@nh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각 지자체,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과 홍보를 비롯해 각종 협조체계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포털 누리집 또는 정

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올해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

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또는 정부24 사이트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4.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과 김민지 대리

전 화 043)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제97회 충북사회복지포럼 개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충북형 지역사회기반 일자리사업 1인 1기'의 성과 및 참여장애인의 고용유지 요인이라는 주제로 제97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충북형 지역사회기반 일자리사업 '1인 1기' 개선방안 모색 장애인 안정적 고용환경·친화적 분위기 조성 적극 앞장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이하 협의회)와 충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애자)는 5일 증평군립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충북형 지역사회기반 일자리사업 1인 1기'의 성과 및 참여장애인의 고용유지 요인

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관하여 제97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충북형 장애인·기업 상생맞춤형 일자리 사업인 1인 1기 사업의 과정 및 성과, 의미와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

해 마련됐다. "1인1기 장애인·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고용법 제21조 제1항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충청북도 자체 장애인 취업지원 시범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총 3개년 동안 이루어지며 2022년 현재 충청북도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12개 장애인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다. 포럼 주제발표는 백석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제선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은 김창수 부장(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박종식 본부장(주)가치채움, 이상정 위원장(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이 참여하고 협의회 김영석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주제발표에서 김제선 교수는 "훈련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참여기업 간의 협의와 환경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충북지역의 '1인 1기' 사업 훈련 업체 업종 다양화를 위해 사업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서 이상정 위원장은 "참여장애인들과 참여기업의 순환 훈련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취업 연계 가능성을 높여 '1인 1기' 사업이 충북도 내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회장은 "이번 포럼이 지역사회와 기업이 '1인 1기'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애자 센터장은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장애인들의 안정적 고용환경과 고용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다"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등 12개 기관이 지난 7일 '사각지대 영케어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주 12개 기관 '영케어러' 지원 맞손

공공기관·병원·학교 등 연계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충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광훈) 등 12개 기관이 7일 복지

기관 관계자들은 이날 복지관 분관에서 '사각지대 영케어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시청 복지정책과, 교육지원청,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교통대, 건국대충주병원, 충주의료

선배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

단양노인복지관 연합봉사활동... "건강 챙기며 환경정화"

단양노인복지관(관장 최은하)이 12일 '2022 충북권역 선배시민 대회 연합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수행기관인 19개 노인복지관이 각 지역에서 봉사를 진행하는 연합행사다. 단양노인복지관에서는 키오스크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키득키득봉사단 18명이 참여했

다. 이들은 '선배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단양읍내를 돌며 조깅과 쓰레기 줍기를 결합한 플로깅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조깅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환경정화에도 도움이 되어서 뿌듯하고 봉사단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며 "키오스크교육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년을 알차게 보내고 있



단양노인복지관 키득키득봉사단은 12일 단양읍내를 돌며 환경보호를 위한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는데 이번 활동을 일상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됐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이 천사릴레이 기부캠페인 발대식을 진행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천사릴레이 기부캠페인

다음달 30일까지... 모금 목표액 1500만원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은 천사릴레이 기부캠페인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다섯 번째 진행되는 캠페인 발대식에는 아름다운 기부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천사반장(어르신 대표)을 비롯해 복지관 이용 어르신, 지역주

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천사릴레이 기부캠페인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노인 1천4명을 후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모금 일정은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이며 올해 후원모금 목표액은 1천500만원이다. 후원을 희망하는 자는 후원계

좌(농협 301-0294-2569-01)를 통해 모금에 동참하면 된다. 모금된 후원금은 내년도 상반기부터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 김치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천사릴레이 기부캠페인은 2018년 복지관 모금사업으로 탄생해 2019년부터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사업으로 확대했다.

'할배들의 행복 나눔 밥상, 요리경연대회'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남성 독거노인 대상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생명수 100세 힐링센터 요리교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오재훈)은 생명수 100세 힐링센터 요리교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생명수 100세 힐링센터는 2019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옥천군에 거주하는 남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증진, 사회적 증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중에서도 특히 요리교실은 매우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참

여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날 요리경연대회 참여자들은 그동안 직접 배운 요리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고 완성된 요리를 지역 내 장애인과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창용(75, 옥천읍) 어르신은 "요리경연 대회를 통해 그동안 배운 솜씨로 좋은 결과도 얻고 상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며 "힐링센터를 알게 된 게 큰 행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재훈 관장은 "참여자분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에 놀라웠고 요리 실력이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옥천 지역 독거 남성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재단과 함께 하는 인문학 강연

(재)대우재단 대우꿈동산(대표 한수동)·오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응모) 주관, 청주오송도서관 협력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인간 너머의 미래, 포스트 휴먼으로 살아가기' 인문학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인간 너머의 미래, 포스트 휴먼으로 살아가기' 강연은 기술, 세계라는 주제로 다양한 포스트 휴먼의 현실을 분석하고 발

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무엇인지 내포된 위협에 대한 진단 등 모두가 희망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자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강연은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1층에서 11월 22일까지 총 9회기에 걸쳐 진행되며 인문학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대우꿈동산 홈페이지

(http://www.kkumds.or.kr/) 또는 유선(043-273-2813)으로 하면 된다. 유응모 관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등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발맞춰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강연, 문화 행사 등을 제공하여 누구나 일상에서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축제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www.043w.or.kr

충북복지넷

발달장애인 첫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일상생활·건강상태·경제활동 등 최초 조사 실시 “발달장애인 장애 특성·육구 등 살피는 첫 실태조사로 의미 커”

보건복지부는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건강상태,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실시된 조사(2021년 11월~12월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발달장애인(또는 보호자) 1,300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
 - 등복 발달장애인은 25.2만 명(2021년 6월 조사기준), 2018년에 비해 약 1.8만 명 증가하는 등 지속 증가 추세
 - ※ 2021년 12월 기준 25.5만 명
 - 장애 발견은 평균 7.3세, 장애 진단은 평균 11.8세, 장애 등록은 평균 17.7세
 -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 필요 22.5%,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 18.4%

발달장애인 현황

등복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은 25.2만 명(2021년 6월)으로 2018년(23.4만 명)에 비해 약 1.8만 명 증가하는 등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지적장애인은 21.9만 명(87.2%), 자폐성 장애인은 3.2만 명(12.8%)이다.

장애진단 및 조기 개입

- ① 장애 발견

발달장애인의 장애 발견 시기는 평균 7.3세로 자폐성 장애는 3.1세, 지적장애는 7.9세로 나타났다.
- ② 장애 진단

발달장애인은 장애 발견(7.3세) 후 평균적으로 4.5년 후에 진단(11.8세)받으며, 그 중 자폐성 장애는 장애 발견 1.5년 후(4.6세), 지적장애는 장애 발견 4.9년 후(12.8세)에 진단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 10세 이전에 장애 진단받는 경우는 자폐성 장애 93.7%, 지적장애 55.6%
- ③ 장애 등록

장애 등록 시기는 평균 17.7세로, 자폐성 장애는 7.1세, 지적장애는 19.3세에 장애를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보육

- ① 교육

발달장애인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재학·졸업자가 가장 많았고(38.6%), 초등학교(22.6%), 중학교(14.6%) 순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교를 다니는 비율이 42.5%로, 고학년이 될수록 일반학교 일반학급보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다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② 보육

12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어린이집 이용 경험은 85.3%로 나타났다.

자폐성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 통합·전문어린이집 이용률(58.2%)이 높았으며, 지적장애아동은 일반어린이집 이용률(53.5%)이 높았다.

건강 및 의료

- ① 건강과 의료

발달장애인은 '건강상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응답은 36.4%(매우 나쁘다 5.8%, 나쁜 편이다 30.6%)로 나타났다.
- ②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약물 복용 비율은 37.7%로, 자폐성 장애인(48.6%)이 지적장애인(36.1%)에 비해 정신과 약물 복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 지적장애인은 뇌전증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36.2%), 자폐성 장애인은 행동문제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음(40.8%)

- ③ 만성질환

만성질환 유병률은 54.4%로 다빈도 질환은 정신병(30.0%), 고혈압(10.3%), 치과 질환(9.0%), 당뇨병(8.6%), 우울증(7.4%)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 ① 일상생활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22.5%(지적 21.3%, 자폐성 30.5%)로 나타났다.
- ② 의사소통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발달장애인은 18.4%(지적 17.1%, 자폐성 27.5%)로 나타났다.
- ③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해치는 행동(30.6%), △물건을 파괴하거나 빼앗는 행동(22.3%),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동(20.9%) 등의 도전적 행동이 발생했다.
- ④ 낮 시간

평일 낮 시간을 주로 보내는 방법 ※은 부모·가족(31.8%), 집에서 혼자(20.2%), 복지시설(13.9%), 직장(11.3%) 순으로 확인됐다.

 - ※ 주로 보내는 방법은 평일 5일 중 가장 빈번하게 한 활동을 의미함. 예를 들어 5일 중 2일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3일은 집에서 가족과 보낸다면 '부모나 가족과 보낸다'로 응답함(학생의 경우 방과 후의 낮 활동 내용을 응답)

조사 기간은 코로나19 유행 시기(2021년 11월~12월)로 자료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자기 결정 및 미래 준비(18세 이상)

- ① 의사표현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는 61.0%(적극 표현 10.6%, 표현하는 편 50.4%)로 나타났다.
- ② 의사결정

주된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는 경우가 28.6%로, 주된 의사결정 주체가 본인인 경우 그 대상은 부모(50.4%), 형제·자매(8.8%), 배우자(6.1%) 순으로 나타났다.
- ③ 미래에 대한 걱정

발달장애인이 갖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 33.4%, 건강(22.5%),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21.7%), 재산 마련 및 생활비(10.0%)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15세 이상)

- ① 취업

1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20.3%가 취업 중으로 확인되었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30.9%), 장애인 근로사업장(9.3%)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취업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② 미취업

미취업 발달장애인(79.7%)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15.4%로 확인됐다.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음(41.4%), 장애 정도가 심해서 취업이 어려움(40.1%) 등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

사회참여 및 코로나19로 인한 불편

- ① 사회참여

지난 1년간 발달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을 한 경우가 54.1%이다.

이어서 일주일에 1~3번(25.3%), 한 달에 1~3번(13.0%),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7.6%) 순으로 확인됐다.
- ② 여가활동

지난 1년간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은 TV 시청 54.2%, 컴퓨터(19.2%), 음악감상(6.6%)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여가활동도 TV 시청(39.2%), 컴퓨터(13.7%) 등이며,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경우는 71.0%로 나타났다.
- ③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참여에 불편을 느낀 분야

는 외출(68.5%), 모임·스포츠 활동 등 외부활동(67.3%), 문화·여가활동(69.9%) 등 순으로 불편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가족 내 돌봄 및 코로나19 영향

- ① 가족돌봄

가족 중 주 돌봄자는 부모가 78.6%(모 66.2%, 부 12.4%)로 가장 많았고, 주 돌봄자의 평균 연령은 56.6세로 확인됐다.
- ②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로 가족의 돌봄 시간이 늘었다고 생각한 경우는 32.6%이며, 줄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5%로 나타났다.

 - ※ 자폐성 장애인은 코로나19로 가족 돌봄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은 51.9%로 나타남

코로나19 유행으로 발달장애인들은 지역사회시설 이용과 외출의 어려움(31.5%), 학교 등 교육시설 이용 중단(30.2%) 등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 ③ 가족의 어려움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보호자 사후에 대한 막막함(34.9%),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12.2%), 발달장애인의 건강 악화(6.9%), 경제적 부담(6.8%)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 ① 장애인복지사업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이용한 복지사업은 장애인연금(76.3%), 발달재활서비스(44.2%), 장애아동수당(36.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26.3%)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이용한 복지시설은 주간·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18.8%), 장애인복지관(18.1%),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15.1%), 장애인주간보호시설(7.3%) 등으로 나타났다.
- ② 지원 우선순위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 및 국가 지원은 소득보장(48.1%), 의료보장(16.0%), 주거보장(6.7%), 고용보장(5.8%), 안전한 생활 보장(5.1%), 활동지원 보장(4.6%)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대폭 보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간활동서비스 강화, 긴급돌봄 도입 등 2023년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평생 돌봄 강화 추진에 힘쓸 예정이다.

※ 2022년 2,080억 원 → 2023년(안) 2,528억 원(447억 원 증, 21.5%)

우선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여, 최대 하루 8시간(확장형 기준)까지 낮 시간을 지원한다.

※ 기본형 월 125시간 →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65시간 → 월 176시간

또한,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신규 도입한다.(40개소, '23.4월~)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 치료 접근성 제고, 부모·가족의 심리 정서 지원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 공공후견('22. 1,263명→'23안 1,563명, '22. 15만 원→'23안 20만 원),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22. 10개소→'23안 12개소), 부모상담·교육·가족휴식('22. 2,5만 명→'23안 3만 명)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통합돌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22.5월)됨에 따라, 선정기준 및 특화서비스 개발('23),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발달장애인 장애 특성과 육구 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첫 실태조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언급하며 "동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마련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모음.ZIP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성인발달장애인의 자기 육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주간 활동 참여로 자립 생활 지원 및 사회 참여를 높이는 서비스

- ✓ 대상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 지원내용
 -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 구성, 제공기관 및 외부협력기관 통한 주간 활동 이용
 - * 취미·야기,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단가 22년 기준 단가 14,800원

구성인원	1인 집중 지원서비스*	2인그룹	3인그룹
적용 요율	7,400원 가산	100%	80%
시간당	22,200원	14,800원	11,840원

 - * 도전적 행동, 중독장애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연5개교간역 배치로 그룹 활동지원)
- ✓ 활동 지원 급여 조정 주간활동 이용시간별 활동지원 조정

	단회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85시간	125시간	165시간
활동지원	-	△22시간	△56시간
총급여량	+85시간	+103시간	+109시간
- ✓ 제공기관 인력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사·군·공·모를 통해 지정

제공인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방과후 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그룹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제도

- ✓ 대상 만6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 지원내용
 -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고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이용
 - * 취미·야기,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 ✓ 제공시간 기본 월 44시간(월~토, 09~21시 중)
- ✓ 서비스 단가 22년 기준 단가 14,800원

구성인원	2인그룹	3인그룹	4인그룹
적용 요율	100%	90%	80%
시간당	14,800원	13,320원	11,840원
그룹전체	29,600원	39,960원	47,360원

 - * 이용자 그룹유형별 차등 단가 지급
- ✓ 제공기관·인력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사·군·공·모를 통해 지정

제공인력: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으로 심리와 정서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 ✓ 대상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중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

 -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급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선진단서)로 대체 가능
- ✓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인 및 집단 심리 상담 제공

회당 60~100분, 월3~4회 이상, 12개월간 제공, 1인당 월160천원의 서비스 이용권, 필요한 경우 일부 회기는 부부 상담으로 진행 가능
- ✓ 제공인력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 또는 공신력 있는 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박사 이상 학위 취득자
- ✓ 제공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시·군·구)

전자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한국사회복지정보원)

서비스 제공 및 결제
(제공기관)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이용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사업구분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성인권 교육지원
참가대상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형제, 자매 등), 관련분야 종사자 등
발달장애인 참여	참여(필요시)	참여(필요시)	선택
특징	영유아기 부모교육과정 운영 문화활동, 자조모임 지원	현장직무체험, 사업체 견학 특강, 멘토링, 박람회, 진로페스티벌, 자조모임 등	상담형, 강의형, 토론형, 사례연구형 교육제공
운영주체	17개 시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된 지역 수행기관		



복지광장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인가?

복지포럼

좋은 돌봄이란



김 현 숙
청주시경노인복지관 관장

윤석열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만 100개를 축소(약 10%)하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전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을 만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어르신의 지인이 고추농사를 지어왔는데 농사에 필요한 일손을 구하지 못해 농사를 그만 두기로 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실정에, 마을의 노인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느라 힘든 고추 따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니 짧은 시간만 일하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노인일자리는 참여가 마땅하다는 논리를 피력하셨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노인일자리를 위해 20년 간 혼신의 힘을 다해

온 필자로서는 논쟁을 할 수도 없고, 설득과 이해도 구할 수 없어 답답한 심경이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농촌지역의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장들로부터 농촌지역은 노동력이 있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농사일에 참여해 많은 일당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노인일자리는 장시간 노동이 어려운 고령인 어르신들만 참여하고 있어 참여자 구하기가 어렵고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고충을 많이 들어온 터였다.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각자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 시각차이가 크면 논란과 논쟁이 발생한다. 이 사안이 쟁점이 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형 일자리 축소 대신 보수가 높고 안정적인 민간형(시장형, 기업연계형) 일자리와 사회적비즈니스형 일자리를 늘리고, 연령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사업 운영을 하여 복지 시각지대를 넓혀겠다는 입장을 내어놓았다. 저소득 고령노인이 많이 참여하는 공공형 일자리 대신, 젊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참여가능한 민간형, 사회적비즈니스형 일자리 대체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다는 설명은 이제까지의 사업배분 방식(지역별 할당방식)을 지켜왔을 때 설득력이 없는 설명들이다. 애초에 정부의 시각은 노인일자리를 예산투입만 많은 단순 소모적 복지사업이며, 다년간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노인 관련 단체 및 일부 지방의회, 한

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 각계에서는 “저소득 초고령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대책없는 건전재정과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조 아래 기업연계형과 시장형 일자리 일부를 증가해 민간에게 그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도시지역에 비해 더욱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한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인일자리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강은나 외(2017)의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역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내 노인돌봄의 시각지대를 완화하는 노인 보호기능을 강화하며, 교육역량증진을 통한 교육효과성과 예산절감 효과 및 지역 환경개선, 지역사회 안전도, 지역사회의 감시자와 조력자로서 사회적 자본 확대, 세대 간 이해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의 효과를 가지는 등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김문정(2021)의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건강개선과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만족도 향상, 공공서비스 질 개선, 지역내 돌봄공백 완화 등의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노인일자리를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이며, 노인의 빈곤 해소 뿐 아니라 건강,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적 문

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투자로서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다른 유형의 일자리에 비해 참여자 평균연령이 76.6세로 고령인 노인들이며, 기초연금 대상인 저소득 노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21년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OECD 평균치인 15.3%의 3배에 해당한다. 또한 노인자살률은 OECD회원국의 평균 3배 이상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공적연금은 또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기초연금은 하위소득 70% 노인이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42% 정도만 받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고 있는 현실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은 더욱 축소된다. 결국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인일자리를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유일한 수입원일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참여 자체가 생계의 수단이며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해주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역할을 감안한다면 효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이유로 인한 섣부른 일자리 감축은 더 많은 부분을 잃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이다.



오 명 군
청주시장애인단체지원센터 원장

지난 7월 1일 청주시장애인단체지원센터(이하 '단봄')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단봄은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개인 사정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이 최대 30일(72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하고 있다. 단봄은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이사장 송유정)에서 2027년 3월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한다.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에 포함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단기보호’는 재가복지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중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호자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생활환경을 지원하여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업은 참여정부 지방분권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나, 201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환원되었을 당시에도 지방 사업으로 여전히 남겨 되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으로 지역 간 시설의 인력 지원 및 인건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실태조사연구, 2020. 한국장애인개발원 발책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통해 단기거주시설의 인력지원기준을 사회재활직은 기존 이용장애인 5명당 2명에서 이용장애인 2.5명당 2명으로, 조리직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했다. 그러나 단기거주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지자체가 100% 지원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에 전국의 지자체는 답답지 않았을 것이다.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함에 조리원이 1명인 실정에서 조리원의 휴무에 돌봄교사가 식사 준비를 위

해 자리를 비운다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단봄에서는 안전이 좋은 돌봄이라는 기치 아래 시설장 포함 사무국에서 조리원 휴무일 식사 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조리원 증원의 필요성을 피력하여, 시에서는 2023년 조리원 증원 계획을 세우고, 시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청주시의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고무적인 일로 생각하며, 이용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해 안전하고 좋은 돌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짐한다.

단봄은 장애인 보호자에게서 명분을 얻어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청주시의 공약으로 건립되었다. 건립 전부터 이미 많은 보호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내원하여 예비방문, 상담과 이용계약을 마쳤지만, 막상 자녀(가족)를 시설에 맡기려니 마음이 편치 못하다며, 그래도 어려움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든든하다고 말한다. 약 4개월의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보호자를 만나고, 그들의 속사정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뇌병변장애 이용인을 단 한 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오직 자신만이 이십여 년 동안 수발했다는 어머니가 한가득 짐을 들고 찾아오셨다. 이용인을 돌보다 보니 주변 가족 구성원과 소원해져서 가정불화 등 어려움이 크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 가족 여행을 가고 싶지만 주변에 이용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손을 빌린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로 상담을 시작했다. 상담 후 한결 밝은 표정으로 이용인 특성에 따른 돌봄 주의사항, 유동식 섭취 방법 등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해주시고, 1박 2일 가족여행을 다녀오셨다. 단봄에 다시 찾아와 어느덧 성인이 된 아들과 처음으로 손을 꼭 잡고 여행을 하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의 휠체어만 믿고 걷다보니 어느새 장성한 아들의 손이 가슴 아팠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시는데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이의 눈가가 촉촉했다.

이렇듯 단기거주시설은 보호자의 신체적·정서적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더욱 건강해진 가정의 품속에서 장애가 있는 구성원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족 구성원의 마음까지 보듬어 주고, 안전하고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청주시장애인단체지원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

복지의 시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중도입국 청소년)



양 대 성
충북다문화가정지원센터 교감

청주 터미널 근처에 위치한 청주새날학교는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해 한국어와 검정고시와 그 외 각종 체험활동,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로 온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청주에서 유일한 전일제로 운영하는 대안학교이다. 2006년 7월부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취업이나 한국생활 정착을 돕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삶을 조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들의 자녀들이 마

땅히 받아야 할 권리, 그들의 삶을 보다 궁극적으로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낯선 타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취약하며 자녀 교육 역시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보게 되었다. 그 이후 2008년 4월 이때부터 충북다문화가정지원센터 내 청주새날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세워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된 그들의 자녀를 돌기를 시작, 부모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어린 유아를 돌보며 교육하는 것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던 중 다문화 시각지대에 놓인 중도입국청소년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들을 포함한 외국인 이주민 자녀들의 교육, 그들의 삶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여 현재까지 교육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청주새날학교 이용 학생의 대부분은 고려인들과 조선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아이들은 특이나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는데, 우즈베키스탄이나 중국 등 본국에서는 고려인,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며 이방인처럼 살아간다. 아이들 교육 현장

에 있다 보면 '고려인 그들이 진정 한국인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섣후 대답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종종, 자주 마주하게 된다. 그들의 바람과 꿈처럼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서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했는데, 결국 어려운 환경과 여건 때문에 떠나고 마는 학생과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교육의 한계라는 벽에 매번 부딪히게 한다.

청주새날학교의 학생들은 현재 20명 정도로 대부분 청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멀리서는 진천, 광혜원에서 직접 버스를 타고 다니며 학교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손블라드라는 학생은 진천에 거주하고 있어 항상 새벽에 일어나 등교 준비를 한다. 수업을 모두 마치고 집에 귀가하면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거의 한 번도 지각하지 않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 학생은 한국에 입국하여 일반 학교에 다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우울감이 심해 학교 자퇴를 선택했고 그 이후 새날학교로 오게 되었다. 처음 몇 개월간은 선생님, 친구들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우울감이 빠져 평만 보면서 학교를 다니던 친구여서 잘 적응할 수 있을 지 의문이었지만 학교

선생님, 친구들의 사랑으로 아직도 우울한 부분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전보다 많이 좋아져 먼저 인사도 하고 검정고시도 합격해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 얼마 전 모범학생들을 대상으로 몇몇 친구들과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이 학생도 함께 참석했고 여행 중 이 친구에게 학교생활이 어떤지 물어봤는데 “처음 와 본 제주도를 방문해 많이 회복했고 학교와 선생님들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여행을 마치고 개학 이후 블라드가 내 자리로 와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선생님 제주도 또 언제 가나요? 우리 공항에서 만나죠”라고 물어볼 정도로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태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심대 초, 중반에 한국을 찾은 중도입국 자녀들에게 언어 장벽, 학업 장벽, 취업 장벽 모두 한국사회의 넘기 힘든 적응 과제이고, 다문화, 이주민 지원의 시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중도입국 청소년 자녀들은 한국 생활이 항상 외롭다. 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우리 청주 새날학교가 자랑스럽고 우리 기관이 오래도록 그들에게 설 수 있는 곳이 되어 주길 기도해본다.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민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 딸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1년 전 연락이 뜸했던 육촌동생으로부터 갑자기 친민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다음 달에 적금을 타게 되면 금방 갚겠다는 동생의 말을 믿고 바로 친민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친족상도례

A. 우선 육촌동생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민사상 급전대차관계에서 돈을 받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에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83도1048판결). 즉 육촌동생은 돈을 차용할 당시에 이미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와 관련된 빛은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탕감되는 않으므로 설사 가해자가 파산면책선고를 받더라도 질문자의 돈은 변제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이 아니라 별개로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봉사단

(사)한국기능선수회 충북지회, 의류 수선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사)한국기능선수회 충북지회(회장 강충열)는 지난 10월 20일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충북재활원 마리아의집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의류 수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한국기능선수회 충북지회는 2022년 6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충열 회장은 "우리 단체는 일반적인 수선과 제작이 아닌 장애에 맞는 맞춤형 의류 수선 봉사활동으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win1004@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복지정보 제공

- [사랑의전화복지재단]결식위기가동 겨울방학 식료품 지원 공모 신청안내
- 지원인원: 기관 당 최대 10명 (10명 미만도 신청가능)
- 사업지역: 전국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제외)
- 지원내용: 1인 당 쌀 10KG 및 식료품 키트 (레토르트 갈비탕, 통조림 등 5종)
- 신청대상: 모든 사회복지사업 기관 (비영리단체 지원가능)
- * 그룹홈, 쉼터 등 아동생활시설은 지원불가
- * 개인지원은 불가, 기관및단체 지원만 가능
- * 사물관리가 가능한 기관
- * 도서산간지역 및 제주도 지역 제외
- 지원대상: 8세~19세의 취약아동 (15~04년생 까지) 신청가능,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저소득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편부모가정 아동
- 지원방법: https://www.loveaid.org/ 접속 후 공지사항 신청서 등 다운 및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서류접수: 2022.10.14.(금) ~ 2022.11.18.(금)
- 선정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등에 문제가 없는 단체 선정
- 선정발표: 2022.12.1.(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물품발송: 2022년 12월12일(월) ~ 2022년 12월16일(금)
- 문의: 02-6324-0114

- [함께하는 사랑밭]아동·청소년 생계비,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2022년 12월까지 상시 접수
-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초·중·고등학생)
- 지원기간: 2022년 9월부터(1년간)
- 지원조건: 해당년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기관: 사회복지관에 한함
- 신청지역: 충남, 세종, 인천, 충북, 제주, 강원지역에 한함
- 신청방법: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제출서류 E-mail(srbat123@withgo.kr) 제출
- 대상선정: 서류 심사, 심의 후 선정
- 참고: https://www.withgo.or.kr/index.do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2022 기본생활지원사업(보육, 학습, 의료, 주거)
- 사업기간: 상시모집
- 지원대상: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 지원내용: 보육비, 학습비, 의료비, 주거비
- 신청방법: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통한 신청(대상자 사물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유관기관으로 지역복지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학교, 병원 사회사업팀 등)
- 문의: 043-256-4493
- [KBS강태원복지재단]위기가정 지원 신청 안내(마을단위NPO 허브사업)
- 신청기관: 전국의 복지관(마을단위NPO) 업무협약 체결완료 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위기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
- 지원내용: 위기가정 지원금 1가정 당 최대 500만 원
-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최대 2개 항목 신청 가능
- * 단, 수급자의 경우 현재 수급비를 받고 있는 동일한 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 신청이 불가
- 신청기간: ~2022. 12. 31. (사업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www.kbsktw.com)에서 온라인 신청

- [기아대책 기대플러스]기아대책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희망동지
- 사업기간: 상시모집
- 사업대상 및 기준: 아동을 포함한 가정 중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으로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방법: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통한 신청(대상자 사물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유관기관으로 지역복지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실 등)
- 지원기준: 아동을 포함한 가정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
- 지원내용: 생계비(최대 600만원), 의료비(최대 1,000만원), 주거비(최대 500만원), 교육비(최대 300만원), 심리정서치료비(최대 10회 기준)
- 문의: 02-544-9544
- 참고: https://hope.kfhi.or.kr/
- [밀양북지재단]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지원내용: 장애아동 수술비 지원(최대 500만원), 재활치료 및 의료 소모품 지원(최대 240만원)
- 지원대상: 19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 신청방법: 밀양북지재단 홈페이지(https://mira.org/) 접속 후 신청서 등 작성 및 이메일 제출
- 모집기간: 상시접수(해당 지역별 사업기관 리스트 참고)
- 문의: 070-7462-9135
- [코아드]코아드 자동문 무료설치 캠페인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 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www.coadoor.com)
- 선정방법: 매일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일 1곳 선정
- 안내문의: 189-7081 또는 coad@coadoor.com 으로 문의 가능

K-water 장학회 미래육성 장학생 모집
K-water 장학회 미래육성 장학생 제도는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원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2. 11. 3(목) ~ 11. 16(수) 18:00까지
신청방법: K-water '단비톡톡' 접속 → [사회공헌] 클릭 → [K-water 장학회]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접수링크: www.kwater.or.kr/danbitoktok/kor.do
* 학교추천을 통해 대상 신청
* 학교별 1명만 신청 가능
* 지원대상: K-water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담주변 지역내 거주중이며, '22.10월 현재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의 저소득 학생 40명 (담주변 지역 20명/타지역 20명)
* 장학금 지원
2023년부터 중학교 졸업 시까지 연 150만원의 미래육성 장학금을 지원
* 성장지원활동
진로 탐색과 다양한 직업과 소통 활동 체험의 기회 (대학생 멘토링, 소통 캠프, 장학증서 수여식 등)
문의처: www.kwater.or.kr/danbitoktok/kor.do (042) 629-2427
※ 자세한 내용은 K-water 단비톡톡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자원 봉사자 모집

- ▶ '자원수집도우미' 봉사자
관리센터: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55-2144
▶ 수어통역 봉사
관리센터: 한국농어인협회 충청북도협회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33-5618
▶ 아동 학습보조 봉사
관리센터: 목령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70-7039-8533
▶ 무료급식지원 및 도시락 배달
관리센터: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855-3000
▶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관리센터: 충주성심맹아원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843-1432
▶ 점자도서 워드입력 봉사
관리센터: 무지개도서관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37-5544
▶ 주방봉사(설거지)
관리센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75-7411
▶ 행정업무보조 봉사
관리센터: 음성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883-2470
▶ 학습정서 멘토링 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충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857-5960
▶ 찾아가는 실버건강대학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괴산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834-3411
▶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복지만평

자립

이창신 www.bokmani.com



자립은 당사자에게 최적인 환경으로 추진해야 합니다.